



◇김이순



◇정정숙



◇이우용



◇고경순



◇김소봉



◇김희수



◇김종희

10대

고등부법회 활성화 바래

김재욱(18, 대구시 지산동)
저를 포함해서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뜻을 이뤘으면
합니다.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다고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들의 선입견을 바꿔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 고등학교 학생법회가 일반 학생
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적인 법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병 낫길 기도

김민아(14, 부산시 가야3동)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유
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연예계에
서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화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병원에 입
원 중이신 할머니께서 빨리 퇴원하셔서
함께 접어갔으면 합니다. 접어 열심히 다
너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소망

이명규(21, 인천시 용종동)
연등행사를 준비하면서 후배들에게
연꽃 하나하나에 자신의 소망을 담아
'연꽃등'을 만들자는 말을 했습니다.
대학에 오기 전 꿈꿨던 대학 생활은 잊
어버린 지 오래고 학점의 노예만 늘어
가는 지금, 내 후배들만이라도 연등을
접으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맛보게 해
주고 싶은 생각에서였습니다. 제 소망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팍팍한 현실
을 견디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조금은 비현실적
일지라도 피안의 세계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극락정토가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
에, 우리들의 소망은 존재함으로써 그 가치가 유
효하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
님께서 이 땅에 나루신지 2547년. '부처님오신날'
소망이 실현된다면'을 주제로 10대에서 70대까
지 남녀 불자 각각 한명씩에게 소망을 들어봤다.

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하
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
든 것이 이뤄지는 날까지.

부처님오신날 = 어버이날

이보람이(21, 인천시 관교동)
5월 달력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처
님오신날이 우리들의 부모님과 같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핏덩어리를 먹고, 입
혀 한 인간으로 자라게 해주신 부모님들
도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
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으며, 법을
잘 공부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부
처님오신날이 부모님의 사랑과 고마움
을 아는 좋은 날이 됐으면 합니다.

30대

전국도 '희망의 달리기'

권준오(38, 서울시 서빙고동)
대불정에 몸을 담고 있는 저는 회원수
감소와 조직력 약화를 고민하다 조직 활
성화 방안으로 '희망의 달리기'를 구상
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서해에서 남
해로, 동해에서 인천까지, 다시 서울
로 돌아오는 릴레이 달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불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의 불심을 확인하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면 합니다. 회향하는 날 '희망

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
고 싶습니다.

새소망 이루기 위해 노력

류현주(33, 광명시 철산4동)
소망하는 것이 이뤄진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하는 것이 이뤄져 버리면 삶은 재
미없고 허탈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소
망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것
이라는 생각에입니다. 최근 저의 소망
은 멋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고, 소
망이 이뤄지니 예쁜 아기를 갖는 게 소
망이 됐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소망하
는 것은 비례하는 것일까요? 저는 또 다
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소망을
이루려 노력합니다.

40대

거사법회 활성화 됐으면

김종희(42, 부산시 동삼3동)
거사법회에서 총무 소임을 맡고 있습
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법회 참석율이 저조하고 회원들의
마음도 안정이 되지 않아 안타까울 때
가 많습니다. 힘들수록 중심을 잃지 않
게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법회의 소중
함이 커집니다. 생활 중에 닦지는 모든
역경을 공부의 밑거름 삼아 실천한다면
어떠한 역경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거사들의 법회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원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달빛 되길

원광월(45, 순천시 연향동)
나 혼자 힘든 것도 아니지만 때론 버
거울 정도의 힘든 일상에 스스로 절망
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
습니다. 한결같은 뒤로 물러서 주위를
살펴다보면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바라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음을 알았
을 텐데, 부처님께 음성공양 드릴 수 있
는 이 순간의 복덕이 가장 크고 소중한
행복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더불어 사
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
으로 어둠을 밝히는 은은한 달빛이 되
기를 소망합니다.

50대

용기 · 희망주는 등불로

김소봉(55, 진해시 석동)
법당에서는 분명 밝았었는데 일주만 밖
에 나서는 금세 꺼져버리는 것도 마음의
등불일까요? 비와 바람과 눈보라에도 꺼
지지 않는,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게 용기
와 희망을 주는 그런 등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난타라는 여인과 법장
비구에게만 서원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가
족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단 한 서원

다툼·오염없는 세상 됐으면...

10대~70대의 부처님오신날 소망은

부처님법 실천 기회 마련

고경순 (66, 대구시 중동)
올해로 10년을 맞은 대구 자비의 전화가
이제 곧 대구불교회관으로 이전합니다. 대
구불자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만큼, 대구지
역 불교자원봉사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더
불어 모든 불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
해 부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비의전화
봉사팀에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70대

하루 한가지 좋은 일 서원

김이순(76, 고양시 성서동)
모든 것이 무상인 세상에서 변화와 망
상이 판치는 현실을 나무라시며 부처님이
또 어김없이 오셨습니다. 망자의 '수'의
에 '주머니'가 없듯, 무릇 중생들은 빈손
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생사의 이
치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한다는 생활신조로 부처님께 귀의하면 바
로 극락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만사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입니
다. 마음을 닦고 올바른 행동을 해 아미타
불 극락세계가 펼쳐졌으면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생겼으면

정정숙(72, 인천시 길산동)
부처님을 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초보
불자입니다. 그저 자식들과 손주들이 건
강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제가 사는
부평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겼으면 하
는 것입니다. 요새 매일 서울노인종합복
지관에 다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어 여간 즐겁지 않습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의 불 밝힐일지라도 불타여, 그저 가혹하
게 여기시어 가피를 내리소서.

고통없는 세상 영원

김희수(50, 서울시 신천동)
저의 소망은 나도 남도 고통 없는 것과
도반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전에 내가 원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안
위와 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부처
님 법을 알게 됐고 또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
다. 부처님오신날에 소망이 실현된다면
도반들과 손잡고 노래 부르며 눈물을 흘
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없는 세상이 오
다니...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에
서 살게 되다니...

60대

국민 모두 잘살 수 있기를

이우용(69, 부천시 신곡3동)
요즈음 북한 핵 문제가 뭐다 해서 나라
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또 경제난이 심
각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
다. 무엇보다도 나라가 튼튼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교계 내부로
들어오자면 종파간의 이해로 인해 교단이
어찌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
철스님 같이 사부대중이 모두 존경할 수
있는 큰 스님이 그림습니다. 재가자들도
더 열심히 보시행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원광월



◇권준오



◇류현주



◇이명규



◇이보람



◇김재욱



◇김민아

만화와상식, 두 권의 책을 한 권에 담은 마음시리즈 첫번째 이야기



“부처님도 미소자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불교”
하이 달린 만화와 교양이 되는 불교상식을
따뜻한 느낌의 칼라지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파인, 수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
법보사나 법우들 간의 선물용으로도 최고!



불교설법전서 9권 발간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
초파일 기간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불교설법전서>는
행사 · 교리 · 불사 · 비유설화 · 시사 등
설법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00% 행복해지는 연습
실험처럼 살·아·라



“읽는 순간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
이 책에서 페마 쿠퍼는 스님은 우리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유머, 유행성, 용기, 지혜의 원천을
찾아 주는 수행법들이 가득 담겨 있다.

神妙章句大陀羅尼 講解



불자들이 수지 독송해온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말로 풀이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싶노라면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지친 우리를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하다.